

# 가정에서의 놀이성과 학급 특성이 유치원에서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

Effects of Playfulness Among Young Children at Home and Class Characteristics on Playfulness at Kindergarten

강현수<sup>1</sup> 신나리<sup>2</sup>

Hyun Soo Kang<sup>1</sup> Nary Shin<sup>2</sup>

##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aimed to analyse the influence of young children's playfulness at home and class characteristics on their playfulness at kindergarten.

**Methods:** Twenty eight classes of 3, 4 and 5 year olds in Gyeonggi and Chungbuk provinces were recruited.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mothers and head teachers of the children of recruited classes. Analyses was implemented using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with HLM 7.0.

**Results:** Differences were found in children's playfulness at kindergarten according to their classes.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cluding, gender, age and playfulness at home were shown to h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playfulness at kindergarten, while relevance of variable class characteristics to playfulness at kindergarten was not observed.

**Conclusion/Implications:** It is concluded that playfulness of children is more related to playfulness at home rather than class characteristics, implying the strong characteristic of playfulness as an individual trait.

**key words** playfulness, class characteristics,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 본 논문은 2017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임.

\*\* 2017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되었음.

### <sup>1</sup> 제1저자

공립 파장유치원 교사

### <sup>2</sup> 교신저자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e-mail : binah2009@cbnu.ac.kr)

## I. 서론

유아에게 있어 놀이는 신체, 정서, 인지 및 사회 발달을 포함한 전인적 발달을 돕는 수단으로, 유아가 성장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활동이다. 유아는 놀이를 통하여 주변 환경,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물과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 세계를 넓혀가고 경험을 반복하여 놀이함으로써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임성혜, 차현화, 윤현숙, 2003). 때문에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놀이 지도 및 지원을 중요한 교사의 역할로 보고 있다. 더욱이 교사에게 있어 놀이는 유아의 발달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유아가 자신의 흥미와 요구에 따라 하고 싶은 놀이를 선택하는 자유선택활동 시간을 일과 계획 및 운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으로 삼아 왔다. 이에 현재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시행되고 있는 누리과정의 대표적인 지도 방법 또한 놀이 중심의 통합적인 교육과정 운영이다(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013).

유아의 놀이는 그 속성상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서 비롯하여 스스로 시작하고 진행하므로, 개별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서 하는 놀이는 태도와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즉, 주도적으로 놀이를 이끄는 수준, 놀이 중 큰 소리를 내고 웃으며 놀이를 즐기는 수준, 또래 친구들과의 놀이를 즐기는 수준, 놀이 파트너와 의견을 나누며 새로운 놀이 방법을 만들어 가는 수준에 있어서 개인차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와 같이 개별 유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놀이 중의 독특한 성향은 놀이성(playfulness)으로 개념화되어 왔다(Barnett, 1990, 1991; Lieberman, 1977).

놀이성은 놀이를 접근하는 다양한 관점 중 놀이자의 내적인 성격 특성을 의미하는 심리학적 인 구인에 해당한다(김영희, 2002). 놀이성을 처음으로 개념화한 Lieberman(1977, p. 23)은 놀이를 왜 하는지가 아닌 어떻게 하는지에 관심을 두어 놀이성을 개념화하여, 놀이 중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및 유머감각이라는 행동으로 발현되는 개별 놀이자의 성격 특성을 놀이성으로 보았다. 이후 Barnett(1991) 또한 놀이다운 행동을 일으키는 성향이라는 놀이성의 정의에 기초하여, Lieberman과 동일하게 5개 하위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놀이성을 통해 놀이 행동이 생산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봄으로써, 개별 유아가 보이는 놀이의 질적 특성과 놀이 스타일을 가늠하는데 놀이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일반아 뿐만 아니라 장애아를 대상으로 놀이성을 연구한 Bundy(1998, 2003)는 놀이성을 개인적인 특질로 보는 데에는 동의하였으나, 내재적 동기, 내적 통제, 현실감 부재의 자유, 자유로운 참조체계라는 4가지 요소의 조합으로 보았다.

한편, 국내에서 수행된 대부분의 유아 대상 놀이성 연구는 Lieberman의 개념에 기초하여 Barnett이 발전시킨 Children's Playfulness Scale(CPS)을 변안하여 사용하여 왔으며(유애열, 1994), 최근 Bundy(1998)가 개발한 Test of Playfulness (ToP)를 한국판으로 예비표준화한 진홍신(2003)의 K-ToP가 장애아를 대상 연구에서 활용되어 왔다. 이들 척도는 원 척도와 동일한 하위 차원으로 구성된 것에 반해, 최근 김명순, 김길숙 그리고 박찬화(2012)는 놀이성의 개념을 포괄하여 주도적 참여, 인지적 융통성, 즐거움의 표현 및 자발적 몰입의 4요인으로 구성된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를 개발한 바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놀이성은 개별 유아의 놀이하는 방법이 얼마나 놀이다운지를 특징짓는 태도 및 성향이라고 정의해볼 수 있다. 특히 학자마다 놀이성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놀이 상황에서 행동으로 표현되는 자발성과 즐거움으로 대표되는 놀이의 양식으로 놀이성을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놀이성은 유아의 발달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밝혀져, 놀이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정서능력, 인지능력, 창의력 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김은숙, 2013; 박상선, 서현아, 2014; 배미경, 2012; 우수경, 2015; Lieberman, 1977; Wilkes, Cordier, Bundy, Docking & Munron, 2011), 성인기의 원만한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력, 긍정적 정서와 성격에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Barnett, 2007; Proyer, 2012). 이에 유아의 놀이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그간 유아의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아가 놀이를 하는 주요 맥락인 가정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특히 가정 내에서 놀잇감이나 놀이 시간, 놀이 주제 등을 주로 제공, 조정하는 인적 환경인 어머니의 성향이나 양육태도가 유아의 놀이성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 주로 탐색되어왔다(강지혜, 이경남, 2011; 신선희, 차윤희, 김영희, 2008; 이상은, 이주리, 2010; 임진경, 노은호, 2014; 장영숙, 조혜정, 2006; 정미라, 김민정, 이방실, 2015).

그러나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교육 및 보육비의 무상지원으로 인해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유아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 시간 또한 길어지고 있다. 즉, 유아교육기관 또한 놀이성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유아교육기관 환경의 질이 높을수록 또래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더 많아지고(권세경, 이순영, 2005), 배회하는 활동 대신 놀이에 몰입하게 되며(조해연, 이기숙, 2014), 결과적으로 높은 수준의 놀이에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화윤, 1992; Howes & Stewart, 1987). 이는 놀이를 지원하는 교사의 특성과 이에 따른 물리적 특성 및 프로그램 또한 다르기 때문에 유아의 놀이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기관의 특성에 따라 놀이성 또한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Barnett(1991)은 기관 유형에 따라 유아의 놀이성 수준이 달라짐을 보고하였으며, 국내에서도 심숙영과 김점연(2005)이 프로그램의 질이 높은 어린이집의 유아가 질적 수준이 낮은 프로그램의 유아에 비해 놀이성이 높음을 밝힌 바 있다. 놀이성이 놀이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며, 교수-학습의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Youell, 2008), 적절한 환경과 자극,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유아의 놀이가 높은 수준의 놀이성을 보이게 되며, 결과적으로 유아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질은 다양한 변인으로 대표되는데, 크게 구조적 질과 과정적 질 변인으로 구분된다(유선영, 박선희, 조해연, 2015;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2). 구조적 질이란 교사 대 유아 비율, 학급 크기, 교사 학력 및 경력과 같이 조절 가능한 특성을 의미하며, 과정적 질은 교육적이고 발달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교사가 제공하는 민감하고 온정적인 경험으로 대표되는 질적 요소이다(심숙영, 김점연, 2005). 이중 그간 다수의 연구에서 유아의 놀이와 관련하여 탐색된 변인으로는 구조적 질에 해당하는 교사 경력과 교사 대 유아 비율, 과정적 질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들 수 있다.

먼저 놀이에 영향을 주는 인적환경 중 하나인 교사는 경력에 따라 담당하는 직무가 변화할 뿐만 아니라 유아의 발달과 요구에 대응하는 역할 또한 발달하게 된다. 따라서 교사의 경력이 높을수록 놀이상호작용이나 놀이교수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송이, 2015; File & Kontos, 1993). 이와 같이 유아의 놀이 관련 변인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교사의 경력은 유아의 놀이성 증진에도 도움이 되어, 교사의 교육경력이 높을수록 유아들은 놀이성의 하위차원 중 신체적 자발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심숙영, 김점연, 2005). 그러나 교사의 경력에 대한 문헌 고찰을 실시한 Kontos와 Wilcox-Herzog(2001)는 교사의 경력이 질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으며, Phillips, Mekos, Scarr, McCartney 그리고 Abbott-Shim(2000) 또한 교사 경력의 효과가 영아에서 유아로 갈수록 약해진다고 밝혀,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교사 대 유아 비율은 프로그램의 질 수준을 결정하고(Friendly, Doherty, & Beach, 2006; LoCasale-Crouch et al., 2007), 유아의 유능감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일관되게 주목받아 왔다(Mashburn et al., 2008). 유아의 놀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의 교사 대 유아 비율 또한 File과 Kontos(1993)는 교사와 유아의 비율이 낮을수록 유아들이 놀이에 더 참여하는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심숙영과 김점연(2005)의 연구에서도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이 낮을수록 놀이성 중 인지적 자발성이 높게 나타나, 낮은 교사 대 유아 비율이 놀이성 증진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편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누리과정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놀이를 통한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환경을 구성하여 유아들에게 제공해야 하므로, 교육과정은 유아의 놀이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적 특성이다. 유아가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관찰하고 탐색해보며 질적으로 우수한 놀이를 유아 스스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과정이 필수적인 조건이다(Harms, Clifford, & Cryer, 2014). Bronson과 Bundy(2001)는 성인이 놀이를 촉진하는 정도가 높고 제공되는 놀이감 및 물리적 배치가 적절할수록 유아의 놀이성 수준 또한 높아짐을 밝혔다. 심숙영과 김점연(2005) 또한 교육과정이 우수한 학급의 유아가 놀이성 높은 수준의 인지적 자발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의 경력, 교사 대 유아 비율 및 교육과정 등으로 대표되는 프로그램의 질은 유아의 놀이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외적인 요인을 단독으로 탐색하는 것은 놀이성의 정의 측면에서 볼 때 개념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개별 유아의 타고난 성향(predisposition)으로 정의되는 놀이성의 특성상, 맥락적 특성에 상관없이 나타나는 것으로 가정되기 때문이다. 즉, 성격의 한 특성으로 이해되는 놀이성은 놀이에서의 개인차를 원인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표현되며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이해된다(김명순 등, 2012). 따라서 유아들의 첫 번째 놀이 환경인 가정에서 나타나는 놀이성에 따라 유아의 두 번째 놀이 환경인 유치원에서도 발휘가 되는지는 놀이성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유아의 놀이성이 환경에 따라 안정적으로 나타나는지는 살펴보는 것은 놀이성을 개인 내적 특성이라고 보는 전통적인 관점과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정교하게 설명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질이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연구는 심숙영과 김점연(2005)의 연구가 유일하며, 환경에 따라 다른 놀이성의 특성을 탐색한 국내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가 가정에서 보이는 놀이성이 유치원에서 어떻게 이어지며, 유아의 개인적 특성과 유치원의 다양한 학급 특성에 따라서 유치원에서 보이는 놀이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상기 목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는 몇 가지 추가적인 특징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먼저 타고난 성향에 해당하는 놀이성은 개별 유아의 기본적인 특징에 따라 다르게 되므로, 유아의 놀이성은 인구학적 특성인 성 및 연령과 함께 연구되어 왔다. 그 결과 전통적으로 놀이성의 하위 차원에 따라 성차가 존재하며(박정연, 이성희, 2009; 배미경, 2012; 우수경, 2008; 장영숙, 조혜정, 2006; 허혜경, 2013; Barnett, 1991), 연령 증가에 따라 유아의 놀이성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정연, 이성희, 2009; 백지연, 2007; Barnett, 199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개인 특성으로 가정에서의 놀이성 외에 성과 연령을 추가하여, 이들 변인의 효과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에서 준용 중이므로, 본 연구의 모집단은 두 유형의 유아교육기관에 재원하는 유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급 수준의 변인을 투입하는 본 연구의 특성상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체계적인 변량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기관의 효과를 학급 효과로부터 통제하고자 연구 대상을 유치원 재원아에 한정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가정에서의 놀이성 및 성과 연령을 개인 수준의 변인으로, 교사 경력, 교사 대 유아 비율 및 교육과정을 학급 수준의 변인으로 선정하여, 유아가 유치원에서 보이는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위계적으로 선정, 구성된 변인 및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ing: HLM)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유아의 놀이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놀이성 향상을 위한 유아교육기관의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험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치원에서의 놀이성은 학급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개별 유아의 특성인 성, 연령 및 가정에서의 놀이성이 유치원에서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단위 학급의 특성인 담임교사 경력, 교사 대 유아 비율 및 프로그램 질이 유치원에서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는 경기와 충북 지역에 소재한 유치원 중 임의로 선정된 28개 학급을 이용 중인 유아 392명과 그들의 어머니 및 담임교사 28명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교육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HLM의 경우 집단 수준의 사례는 30개 이상, 각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 수준의 사례 또한 30명 이상이 권장되나(Mass & Hox, 2005). 일반적으로 집단 수준의 사례는 일반적으로 24개부터 시작하며(Browne & Draper, 2000) 개인 수준의 사례 또한 5명부터 가능하다(Mass & Hox, 2005).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유아의 성별은 여아가 남아에 비해 다소 많았으며, 월령은 65.9개월로 만5세를 약간 상회하였다. 유아의 출생 순위는 둘째가 42.6%로 가장 많았으며, 첫째, 외동, 셋째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연령은 아버지가 39.2세, 어머니가 37.5세로, 아버지의 연령이 다소 높았으며, 학력 또한 부모 모두에게서 대졸 이상인 경우가 가장 큰 비중으로 보고되었다. 직업은 어머니의 경우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비율이 각각 45.9%와 54.1%로 전업주부의 비율이 다소 높았으나, 부모 모두 사무직, 관리직/전문직, 기타 생산직/서비

스직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월평균 가구 소득은 300만 원대에 해당하는 가구가 28.5%로 가장 많았으며, 400만 원대, 200만 원대, 500만 원대의 순으로 나타나, 2016년 전국 월평균 가구 소득인 440만원을 고려하여 볼 때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학급 특성의 경우 4세반이 12개로 가장 많았으며, 5세반과 3세반이 각각 9개와 7개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은 평균 18.7명으로 나타났는데, 담당하는 학급의 유아 수는 평균 22명인데 반해 67.8%에 해당하는 교사가 단독으로 학급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학급의 교사 대 유아 비율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 담임 교사의 경우, 평균 연령은 31세, 경력은 6.5년을 다소 상회하였으며, 학력은 67.7%로 4년제 대졸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소지하고 있는 유치원 교사 자격은 1급과 2급의 비율이 동일하였으며, 공립 유치원 근무자가 53.5%로 사립 유치원 근무자에 비해 다소 많았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 특성

대상	특성	n(%) 또는 M(SD)	대상	특성	n(%) 또는 M(SD)
유아 (N = 392)	월령	65.9( 9.7)	가구 (N = 378)	월 소득(만원)	
	성별			~ 299	68(18.1)
	남아	189(48.2)		300~399	107(28.5)
	여아	203(51.8)		400~499	81(21.6)
	출생 순위			500~599	38(10.1)
	외동	58(15.2)		600~	16( 4.2)
	첫째	123(32.6)		학급 (N = 28)	설립 유형
둘째	161(42.6)	공립	15(53.5)		
셋째 이상	36( 9.6)	사립	13(46.5)		
아버지 (N = 378)	연령	39.7( 4.2)	학급 연령		
	학력		3세반		7(25.0)
	고졸이하	70(18.7)	4세반		12(42.9)
	전문대졸	71(18.9)	5세반		9(32.1)
	대졸 이상	234(62.4)	교사 수		
	직업		1명	19(67.8)	
	사무직	137(36.5)	2명	9(32.2)	
어머니 (N = 378)	연령	37.5( 3.8)	유아 수	22( 3.2)	
	학력		교사 대 유아 비율	18.7( 6.4)	
	고졸이하	86(22.8)	교사 (N = 28)	연령	31.8( 7.6)
	전문대졸	121(32.2)		학력	
	대졸 이상	169(45.0)		전문대졸	7(25.0)
	직업			대졸	19(67.9)
	사무직	47(12.5)		대학원졸 이상	2( 7.1)
관리직/전문직	59(15.6)	경력(개월)		78.3(81.0)	
생산직/서비스직 등	66(17.5)	소지 자격			
전업주부	204(54.1)	유치원 1급	14(50.0)		
		유치원 2급	14(50.0)		

## 2. 측정도구

### 1) 놀이성

유아의 놀이성은 김명순 등(2012)이 부모용으로 개발한 ‘유아용 놀이성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만3세부터 만 6세 유아의 놀이성을 주도적 참여(15문항), 인지적 융통성(9문항), 즐거움의 표현(6문항) 및 자발적 몰입(5문항)의 4개 차원, 총 35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다. 이 척도는 유아를 둔 부모뿐만 아니라 유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교사 또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부모를 대상으로만 타당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유아의 가정에서의 놀이성을, 담임교사가 유치원에서의 놀이성을 측정한 후, 분석에 앞서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여 베리맥스 방식으로 회전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와 교사가 측정한 두 자료 모두에서 인지적 융통성과 자발적 몰입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다. 이에 두 차원의 문항들을 검토한 결과, 인지적 융통성과 자발적 몰입은 모두 놀이 중에 나타나는 독창성과 능동성 및 적극성을 의미하여,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1개 문항(장난스러운 놀이를 즐긴다)의 요인부하량이 어머니와 교사 자료 모두에서 .40 이하로 낮게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도적 참여, 인지적 융통성/자발성, 즐거움의 표현의 3개 요인, 총 34개 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놀이성의 하위차원별 대표적인 문항으로는 보면 주도적 참여는 “다른 유아와 놀이할 때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인지적 융통성/자발성은 “역할이나 모습을 꾸며서 행동한다.”, “무엇을 할 것 인지 스스로 결정한다”, 즐거움의 표현은 “놀이를 하면서 미소를 짓거나 소리 내어 웃는다.” 등을 들 수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놀이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내적합치도를 산출한 결과, 주도적 참여, 인지적 융통성/자발성 및 즐거움의 표현의 Cronbach  $\alpha$ 는 어머니 자료의 경우 각각 .91, .92, .82, 유치원 놀이성의 경우 각각 .94, .94, .80으로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2) 프로그램의 질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Abbott-Shim과 Sibley(1987)가 개발한 ‘유아교육 프로그램 척도(Assessment Profile for Early Childhood Programs: APECP)’를 강숙현(1993)이 국내 상황에 적절하게 수정·보완한 교사용 ‘유아교육 프로그램 자기평가척도’를 사용하였다. 교사의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방식으로 응답되는 원 도구의 하위 영역은 건강과 안전, 학습환경, 일과계획, 교육과정, 상호작용, 개별화의 6개 차원, 14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 검토 후 적절한 흥미영역에 관한 내용인 학습환경 차원과 대소집단 및 자유선택활동 시간 등의 적절한 배치에 관한 일과계획에 해당하는 문항이 교육과정에서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교육과정, 학습환경 및 일과계획에 해당하는 3개 차원, 55문항을 사용하였다. 대표적인 문항으로는 “교실 내의 게시물들은 유아의 눈높이에 맞게 전시한다”, “유아의 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수준별 활동을 마련한다” 등을 들 수 있다.

예비조사 결과 일부 용어가 현재 사용하지 않는 용어인 관계로, ‘활동영역’을 ‘흥미영역’으로

‘작업’을 ‘활동’으로 일부 수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원 척도는 ‘예’ 또는 ‘아니오’의 체크리스트로 제작되었으나, 대부분의 예비조사 대상자가 ‘예’로 응답하여, Likert식 5점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항상 그렇다)로 수정한 후 문항별 점수를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모든 문항이 하나의 요인에 묶여, 점수가 높을수록 프로그램의 질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는 단일차원으로 사용하였다. Cronbach  $\alpha$ 는 .96으로 산출되어 내적합치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연구절차

본 조사에 앞서 10명의 교사와 18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용 질문지의 적절성을 살펴 보기 위해 예비조사가 실시되었다. 2016년 7월 19일부터 7월 22일까지 4일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놀이성의 평가척도와 소요시간에는 문제가 없으나 프로그램 평가척도는 교사들의 문항 이해도를 높이고자 문항의 단어를 일부 수정하였다.

본 조사는 2016년 8월 22일부터 9월 23일까지 28학급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먼저 연구자에 의해 임의 선정된 기관의 학급으로 연구 소개서 및 동의서를 이용하여 원장과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서면으로 안내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였다. 원장과 교사의 동의 후, 연구 참여 학급의 각 가정에 어머니용 질문지를 송부하였다. 부모용 질문지에는 해당 유아를 포함한 각 가정의 인구학적인 특성 문항과 유아가 가정에서 보이는 놀이성 수준에 대한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해당 학급의 담임교사는 부모용 질문지의 회수에 따라 질문지가 회수된 유아에 한해 유치원에서의 놀이성을 평정하였다. 유아 576명의 가정에 배부된 설문지 중 379부가 회수되어 68%의 회수율을 보였다. 28개 학급 중 1개 학급의 경우 회수된 설문지의 수가 최소 사례수인 5개에 못 미쳐, 어머니용 설문지가 회수되지 않은 유아 14명을 대상으로는 교사의 놀이성만을 평정하였다. 이에 총 392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자료가 분석에 활용하였다.

### 4. 자료분석

주요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의 기술적인 통계와 내적합치도 및 변인 간의 상관은 SPSS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본 분석에 해당하는 예측 변인의 영향력은 위계적인 특성을 가진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HLM 7.0을 이용하여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중 위계적 선형모형을 이용한 분석은 3단계에 걸쳐 실시되었다(강상진, 2016; Bryk & Raundebush, 1992). 첫 번째로,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기에 앞서 독립변인을 투입하지 않는 기초모형에 대한 분석을 먼저 수행하여 종속변인인 유치원에서의 놀이성이 학급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는 개인수준의 변인만을 투입하여, 유아의 개인 특성이 유치원에서의 놀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학급 내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급수준의 변인을 투입하여 유치원에서의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급 간 모형에 해당하는 집단수준 모형을 분석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주요 변수의 특성

먼저 가정 및 유치원에서의 놀이성 하위차원 간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먼저 가정에서의 놀이성은 주도적 참여가 3.70( $SD = .56$ ), 인지적 융통성/자발성이 3.95( $SD = .59$ ), 즐거움의 표현의 수준이 4.28( $SD = .58$ )로 보고되었으며, 유치원에서의 주도적 참여는 3.54( $SD = .71$ ), 인지적 융통성/자발성은 3.75( $SD = .70$ ), 즐거움의 표현이 4.06( $SD = .64$ )로 보고되어, 어머니가 평정한 가정에서의 놀이성 평균이 교사가 평정한 유치원에서의 놀이성 평균에 비해 다소 높았다. 하위차원별로 살펴보면, 가정과 유치원 모두에서 즐거움의 표현이 가장 높게, 주도적 참여가 가장 낮게 평정되었다. 단, 모든 하위차원에서 ‘보통이다’에 해당하는 3점을 넘어서서 ‘그렇다’에 해당하는 4점에 가깝거나 상회하여, 어머니와 교사 모두 유아가 보통 수준 이상의 놀이다운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놀이성 하위차원 간 상관은 모두 정적으로 유의하게 보고되어, 인지적 융통성/자발성 수준이 높을수록 주도적 참여 수준과 즐거움의 표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에서의 놀이성 하위차원 간 상관은 .65~.78, 유치원에서의 놀이성 하위차원 간의 상관은 .56~.74로 비교적 높았다. 특히 가정과 유치원에서의 놀이성 하위차원 간 상관은 .16~.24로 상대적으로 낮아, 평정자 간 상관이 평정자 내 하위차원 간 상관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분산팽창계수인 VIF 값을 살펴본 결과, 1.51에서 2.99의 범위로 3보다 작은 값을 가지고 있어,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2. 가정 및 유치원에서의 놀이성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 $N = 392$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① 가정 주도적 참여	1.00					
② 가정 인지적 융통성/자발성	.74**	1.00				
③ 가정 즐거움의 표현	.65**	.68**	1.00			
④ 유치원 주도적 참여	.24**	.17**	.15**	1.00		
⑤ 유치원 인지적 융통성/자발성	.21**	.23**	.17**	.74**	1.00	
⑥ 유치원 즐거움의 표현	.16**	.21**	.21**	.56**	.68**	1.00
<i>M</i>	3.70	3.95	4.28	3.54	3.75	4.06
<i>SD</i>	.56	.59	.58	.71	.70	.64

주. 5점 척도의 결과임.

\*\* $p < .01$ .

교사가 보고한 학급 특성에 해당한 변인의 기술적 통계를 살펴보면, 교사 경력은 78.25( $SD = 80.96$ ), 프로그램의 질은 4.32( $SD = .45$ ), 교사 대 유아 비율이 18.56( $SD = 6.34$ )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이들 변인 간 상관은 학급의 긍정적 특성 변인인 교사 경력과 프로그램의 질은 정적으로, 부정적 특성인 교사 대 유아 비율은 부적으로 보고되었다. 즉, 교사의 경력이 높을수록, 교사 대

유아 비율이 낮을수록, 학급의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우수하였다. 이중 교사 경력과 프로그램의 질의 관계는 예상한 바와 같으나 교사의 경력과 교사 대 유아 비율이 부적 관계를 갖는다는 결과는 다소 해석이 요구되었다. 자료의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 10년 이상의 오랜 경력을 가진 교사와 2인 이상의 교사가 배치된 학급 모두 공립유치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치원 설립유형의 특성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분산팽창계수인 VIF 값은 1.06~1.13의 범위로 3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3. 학급 특성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N = 28)

구분	①	②	③
① 교사 경력	1.00		
② 프로그램의 질	.35**	1.00	
③ 교사 대 유아 비율	-.25**	-.32**	1.00
M	78.25	4.32	18.56
SD	80.96	.45	6.34

주. 교사 경력은 개월, 프로그램의 질은 5점 척도의 결과임.

\*\* $p < .01$ .

## 2. 유치원 놀이성의 하위차원별 기초 모형 분석 결과

종속변인에 해당하는 유치원에서의 놀이성이 학급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학급 내 분산과 학급 간 분산을 구별하여 무조건 모형에 해당하는 기초 모형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유치원에서의 놀이성 하위차원인 주도적 참여, 인지적 융통성/자발성, 즐거움의 표현의 학급 간 분산은 각각 .10, .08, .10으로  $\chi^2$  검증 결과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유치원에서의 놀이성은 학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유치원 놀이성의 기초모형 분석결과 (N = 392)

구분	주도적 참여	인지적 융통성/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b>고정효과</b>			
절편	3.54**	3.75**	4.07**
표준오차	.07	.06	.07
$t(df)$	53.07(27)	61.91(27)	62.56(27)
<b>무선효과</b>			
학급 내 분산	.42	.42	.32
학급 간 분산	.10**	.08**	.10**
$\chi^2(df)$	112.90(27)	93.65(27)	139.66(27)
ICC	.19	.16	.24

\*\* $p < .01$ .

다음으로 총 분산 대비 집단 내 분산의 비율인 집단 간 상관(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을 산출하여, 학급별 차이를 나타내는 집단 간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주도적 참여의 ICC는  $.19(.10/(.42+.10))$ , 인지적 융통성/자발성은  $.16(.08/(.42+.50))$ , 즐거움의 표현은  $.24(.10/(.32+.42))$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가 유치원에서 보이는 놀이성의 분산 중 주도적 참여의 경우 19%, 인지적 융통성/자발성은 16%, 즐거움의 표현은 24%가 학급 간 차이로 인해 설명되는 것을 의미한다. ICC가 10% 이상인 경우 위계적으로 구성된 종속변인의 분산 중 2수준 분산이 의미있는 수준에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Lee, 2000). 따라서 유치원 놀이성의 학급 간 분산이 존재하므로, 위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 3. 유치원 놀이성의 하위차원별 개인 수준 모형 분석 결과

유아의 가정에서의 놀이성이 유치원에서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학급 내 모형인 개인 수준 모형을 분석하였다. 1수준의 변수를 투입하는 이 모형의 고정 효과는 가정에서의 놀이성과 선행연구에서 놀이성에 유의한 예측 변인으로 일관되기 밝혀져 온 성과 연령이 추가로 투입되었다. 이 중 가정에서의 놀이성은 세 하위차원 중 종속변인과 동일한 하위차원이 투입되었으며, 보다

표 5. 유치원 놀이성의 하위차원별 학급 내 모형 분석결과 (N = 392)

구분	주도적 참여	인지적 융통성/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b>고정효과</b>			
월령			
계수	.03**	.02*	.00
표준오차	.01	.00	.00
t(df)	6.60(361)	5.45(361)	.72(361)
성(0=여아)			
계수	-.22**	-.10	-.06
표준오차	.04	.05	.05
t(df)	-4.43(361)	-2.07(361)	-1.27(361)
가정 놀이성			
계수	.26**	.25**	.24**
표준오차	.07	.07	.06
t(df)	3.80(361)	3.65(361)	4.31(361)
<b>무선효과</b>			
학급 내 분산	.36	.37	.30
학급 간 분산	.07**	.06**	.11**
$\chi^2(df)$	93.59( 27)	94.07( 27)	151.83( 27)

주. 가정에서의 놀이성은 유치원에서의 놀이성과 동일한 하위차원만이 투입되었음.

\* $p < .05$ , \*\* $p < .01$ .

정밀한 분석을 위해 연령 대신 월령이 투입되었다. 특히 더미변인인 성별은 자료의 특성상 중심점 교정 없이 모형에 투입한 반면, 연속 변인에 해당하는 유아의 월령 및 가정에서의 놀이성은 집단별 평균으로 중심점을 교정한 후 투입하였다.

그 결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치원에서의 주도적 참여는 월령과 성, 가정에서의 주도적 참여가 유의한 예측변인이었으며, 인지적 융통성/자발성은 성을 제외한 월령과 가정에서의 인지적 융통성/자발성이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그러나 즐거움의 표현은 가정에서의 놀이성만이 유의한 예측변인이었다. 즉, 남아에 비해 여아가 놀이 중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월령이 높을수록 유치원에서의 인지적 융통성/자발성과 즐거움의 표현의 수준이 높았고, 가정에서의 놀이 중 주도적 참여, 인지적 융통성/자발성 및 즐거움의 표현 수준이 높을수록 유치원에서의 놀이성 수준 또한 높았다.

예측 변인의 투입에 따른 분산을 살펴본 결과, 학급 내 분산의 경우 기본 모형에 비해 놀이성의 세 하위차원 모두에 걸쳐 감소하여, 유아의 성과 월령 및 가정에서의 놀이성이 유치원에서의 놀이성을 설명하는데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학급 간 분산 분산은 주도적 참여가 .07, 인지적 융통성/자발성은 .06, 즐거움의 표현은 .11로 모두 유의한 수준이었다. 이는 유아 개인 수준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도 학급 간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2수준인 학급 수준의 분석이 포함되는 위계적 모형 분석이 요구됨을 시사하였다.

#### 4. 유치원 놀이성의 하위차원별 최종 모형 분석결과

최종 연구모형에 해당하는 본 모형은 집단 수준의 변인인 학급 수준의 변인을 개인 수준의 변인과 함께 투입하여 그 영향력을 검증한 것에 해당한다. 학급 수준의 변인으로는 교사 경력, 교사 대 유아 비율 및 프로그램의 질이 투입되었다. 모두 연속 변인인 학급 변인의 경우 중심점을 전체 평균으로 교정한 후 투입하였다.

그 결과 놀이성의 세 하위차원인 주도적 참여, 인지적 융통성/자발성 및 즐거움의 표현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는 학급 수준의 예측변인은 없었으며, 개인 수준의 변인의 영향력은 학급 내 모형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특히, 무선 효과에 해당하는 결과를 살펴보면, 학급 수준에 해당하는 변인이 투입된 이후에도 여전히 학급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가정에서의 놀이성과 학급 특성이 유치원에서의 놀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위계적 선형모형을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유아가 가정에서 보이는 놀이성은 유치원에서의 놀이성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밝혀진 반면, 학급 특성에 해당하는 변인은 유치원 놀이성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못하였다.

표 6. 유치원 놀이성의 하위차원별 최종 모형 분석결과 (N = 392)

구분	주도적 참여	인지적 융통성/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b>고정효과</b>			
개인 수준			
월령			
계수	.03**	.02*	.00
표준오차	.01	.00	.00
t(df)	6.60(361)	5.45(361)	.72(361)
성(0=여아)			
계수	-.22**	-.10	-.06
표준오차	.04	.05	.05
t(df)	-4.43(361)	-2.07(361)	-1.27(361)
가정 놀이성			
계수	.26**	.25**	.24**
표준오차	.07	.07	.06
t(df)	3.80(361)	3.65(361)	4.31(361)
학급 수준			
교사 경력			
계수	.00	.00	-.01
표준오차	.00	.00	.00
t(df)	1.33( 24)	.80(2 4)	-148( 24)
교사 대 유아비율			
계수	-.01	-.01	-.01
표준오차	.01	.01	.01
t(df)	1.06( 24)	-1.35( 24)	-.28( 24)
프로그램의 질			
계수	-.18	-.17	-.24
표준오차	.10	.13	.15
t(df)	-1.81( 24)	-1.34( 24)	-1.60( 24)
<b>무선효과</b>			
학급 내 분산	.37	.37	.30
학급 간 분산	.07**	.07**	.10**
$\chi^2(df)$	88.28( 24)	96.64( 24)	126.37( 24)

주. 가정에서의 놀이성은 유치원에서의 놀이성과 동일한 하위차원만이 투입되었음.

\* $p < .05$ , \*\* $p < .01$ .

먼저 가정에서의 놀이성이 성과 연령의 효과가 통제된 이후에도 유치원에서의 놀이성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밝혀진 점은 놀이성을 개별 아동이 내재적으로 갖는 성향으로 개념화한 기존 관점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놀이성이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성격 특성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양한 상황과 과제에 걸쳐 지속적이고 신뢰롭게 나타나는 성향을 의미하는 것

이므로(Rubin, Fein, & Vandenberg, 1983),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놀이성을 개인의 성향(predisposition)으로 정의하는 전통적인 견해가 지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놀이성은 개별 유아의 놀이를 특징짓고, 놀이에 대한 성향이나 태도, 그리고 놀이의 질적 수준을 드러내는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놀이성이 유치원에서보다 가정에서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된 점은 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결과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의 놀이성의 차이를 살펴본 Rigby와 Gaik(2007)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과 놀이에 대한 성인의 지지, 놀이 파트너인 또래가 있는 유치원에서의 놀이성이 가정에서의 놀이성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는 점은 상당히 흥미롭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은 자신이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끼는 장소에서 놀이를 더 잘 한다고 본 Rubin(1977)의 관점에 기초하여 볼 때, 유치원보다 가정이 유아에게 가장 친숙하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공간이기 때문에 놀이의 자유로움과 몰입 수준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최종모형에서 주요 학급 특성 변인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서의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발견되지 않았다. 즉, 유아가 유치원에서 보이는 놀이성은 학급별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나, 본 연구의 예측변인 중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변인은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개별 유아의 타고난 놀이성이 학급 특성에 비해 유치원에서의 놀이성을 설명하는 주요한 변인이며, 결과적으로 환경의 영향력은 미미한 것이라는 해석을 반증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개별 유아의 특성과 교사의 경력, 교사 대 유아 비율 및 프로그램의 질이 투입된 이후에도 각 학급의 놀이성이 차이가 유의한 결과는, 이러한 학급 간 차이를 설명해주는 또 다른 학급 수준의 변인이 존재하거나 유치원에서의 놀이성을 타당하게 측정하는데 문제가 존재하는지를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제3의 학급 특성 변인의 가능성은 유아의 놀이성을 증진시키는 환경을 평가한 Bundy(1999)의 척도를 고려하여 논의해볼 수 있다. Bundy(1999)는 자신이 개발한 Test of Environmental Supportiveness(TOES)에서 놀이다운 특성을 지원하는 환경을 자료나 공간 배치와 같은 물리적 환경과 인적 환경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인적 환경에는 놀이의 질적 수준을 촉진시키는 성인보다는 관찰 대상이 되는 유아의 놀이 단서에 반응하고, 상호작용을 지속하거나 방해하며, 놀이틀 안에서 다양한 지위를 경험하도록 하는 또래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유치원 놀이성의 학급 간 차이는 해당 학급을 구성하는 구성원의 놀이 협상과 놀이 수행 능력, 놀이에 대한 집단적인 기억과 같은 역동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Johnson, Christie, & Wardle, 2006). 이에 본 연구에서 살펴본 학급 특성 변인 이외에 유치원에서의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급 및 기관 특성 변인에 대한 탐색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다른 한편으로는 유치원에서의 놀이성 측정의 문제를 논의해볼 수 있다. 이는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방식으로 교사가 담당하는 유아의 놀이성을 평정하는 방식으로 자료가 수집된 본 연구의 경우, 유치원 놀이성의 학급 간 잔존하는 차이의 이유가 실제 놀이성의 차이가 아닌 평정자의 편파에 기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유아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온 성인 대상의 설문을 통한 평정은 사용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이므로, 국내 연구에서의 놀이성

측정은 대부분 평정 척도로 구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국내에 번안된 놀이성 평정을 위한 원칙도는 대부분 동일 평정 항목에 대해 훈련된 관찰자가 평정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Barnett, 1991; Bundy, 1998; Lieberman, 1977). 따라서 놀이성의 학급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증은 제3의 관찰자에 의해 유아의 놀이성이 평정되었을 때 보다 타당하게 분석이 가능하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정 방법상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놀이성 원칙도에서는 인지적 융통성과 자발적 몰입이 독립적인 요인으로 개발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두 요인이 하나로 묶여 인지적 융통성/자발성으로 명명한 후 합산하여 사용되었다. 해당 놀이성 척도를 개발, 타당화한 김명순 등(2012)은 인지적 융통성을 놀이 시의 독창성, 융통성, 문제해결력 등의 인지적 과정에 해당하는 요인으로, 자발적 몰입을 놀이 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특성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문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발적 몰입의 문항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순조롭고 융통성 있게 놀이한다’ 등의 인지적인 융통성에 해당하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인지적 융통성에는 ‘놀이를 계획한다’, ‘놀이 중 놀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지어내며 놀이한다’와 같이 능동성과 적극성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교차되어 있다. 실제로 원 척도의 타당화 과정에서도 4개 하위차원 중 인지적 융통성과 자발적 몰입의 상관인 .73( $p < .01$ )로, 하위차원 간 상관 중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있다(김명순 등, 2012). 특히 본 연구 결과에서는 두 요인이 하나로 묶인 것이 교사 자료뿐만 아니라 어머니 자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바, 추후 연구에서는 두 하위 차원을 개념적으로 하나의 구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탐색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 대상에 해당하는 교사가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담당하는 유아의 부모가 연구 참여를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실제로 교사가 보고한 학급당 유아 수는 평균 약 22명이나, 조사에 참여한 유아의 수는 평균적으로 약 15명에 불과하였다. 이에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유아의 경우 유아 또는 가정의 특성이 체계적인 변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들이 유치원에서 보인 놀이성 수준이 해당 학급의 놀이성 수준을 대표한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아의 놀이를 특징짓는 놀이에 대한 태도인 놀이성이 여러 맥락 걸쳐 안정적인 특성을 갖는 성향임을 나타내는 경험적인 자료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 참고문헌

- 강상진 (2016). **다층모형**. 서울: 학지사.
- 강숙현 (1993). 유아교육 프로그램 평가척도 타당화 연구. **유아교육연구**, **13**, 1-29.
- 강지혜, 이경남 (2011). 유아의 개인적 요인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2), 159-180.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01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서울: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 권세경, 이순영 (2005). 물리적 환경의 차이에 따른 영아의 탐색 및 놀이행동과 또래와의 상호작용: 자유선택활동시간을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 **36**(1), 219-236.
- 김명순, 김길숙, 박찬화 (2012).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33**(2), 69-89. doi:10.5723/KJCS.2012.33.2.69
- 김송이 (2015). 보육교사의 경력 및 소진과 놀이교수효능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1), 481-499.
- 김영희 (2002). 놀이를 잘 하는 아동의 특성에 대한 연구. **한국놀이치료학회지**, **5**(1), 3-15.
- 김은숙 (2013). 유아의 성별과 놀이성 및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81**, 91-110.
- 박상선, 서현아 (2014). 유아의 놀이성 및 창의적 성격특성과 문제행동간의 관계.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4), 119-132. doi:10.14698/jkce.2014.10.4.119
- 박정연, 이성희 (2009).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Montessori 교육연구**, **14**(1), 40-57.
- 박화윤 (1992). 유아교육기관의 질적 환경과 유아의 놀이형태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미경 (2012). 유아의 기질 및 놀이성과 또래갈등해결 전략 간의 관계.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6**(2), 195-220.
- 백지연 (2007). 교사 평정에 의한 유아의 놀이성과 실제 놀이주도성의 관계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선희, 차윤희, 김영희 (2008). 어머니의 놀이성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놀이성 간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1), 281-300.
- 심숙영, 김점연 (2005). 유아의 놀이행동과 놀이성에 대한 보육 프로그램의 질 평가 변인예측.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2**(1), 361-383.
- 우수경 (2008). 유아의 성, 기질, 정서능력 및 사회적 능력이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1), 259-280.
- 우수경 (2015). 예비유아교사의 낙관성과 정서지능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인격교육**, **9**(2), 69-85.
- 유선영, 박선희, 조해연 (2015). 한국, 미국(NAEYC), 호주(ACECQA) 유아교육기관 평가 지표의 구조적·과정적 질 비교 연구. **비교교육연구**, **25**(6), 23-49. doi:10.20306/kces.2015.25.6.23
- 유애열 (1994). 유아의 상상놀이와 교사개입에 관한 관찰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은, 이주리 (2010).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유아의 놀이성과 유아의 또래유능성: 유아 놀이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1**(6), 71-85.
- 임성혜, 차현화, 윤현숙 (2003). 부모 및 교사의 역할과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역할놀이와 신체놀이를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7**(2), 181-205.
- 임진경, 노은호 (2014). 교육조력자로서의 어머니 특성변인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4**(3), 1-21.
- 장영숙, 조혜정 (2006).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10**(1),

251-268.

- 정미라, 김민정, 이방실 (2015).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양육태도가 유아기 자녀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생태유아교육연구*, **14**(1), 101-122.
- 조혜연, 이기숙 (2014). 어린이집 2세 학급의 물리적 환경 보육과정 교사 상호작용의 질이 영아의 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45**(3), 115-136. doi:10.15854/jes.2014.09.45.3.115
- 진홍신 (2003). 한국판-놀이다움 평정척도(K-ToP) 표준화 예비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19**(4), 71-90.
- 허혜경 (2013). 유아의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의 성,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효과분석. *한국보육학회지*, **13**(2), 83-102.
- Abbott-Shim, M. S, & Sibley, A. M. (1987). *Assessment Profile for Early Childhood Programs*. Atlanta, GA: Quality Assist.
- Barnett, L. A. (1990). Developmental benefits of play for childre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2**(2), 138-153.
- Barnett, L. A. (1991). The playful child: Measurement of a disposition to play. *Play & Culture*, **4**(6), 51-74.
- Barnett, L. A. (2007). The nature of playfulness in young adul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4), 949-958. doi:10.1016/j.paid.2007.02.018
- Bronson, M. R., & Bundy, A. C. (2001). A correlational study of a Test of Playfulness and a Test of Environmental Supportiveness. *The Occupational Therapy Journal of Research*, **21**(4), 241-259. doi:10.1177/153944920102100403
- Browne, W. J., & Draper, D. (2000). Implementation and performance issues in the Bayesian and likelihood fitting of multilevel models. *Computational Statistics*, **15**(3), 391-420. doi:10.1007/s001800000041
- Bryk, A. S., & Raudenbush, S. W. (1992).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 Bundy, A. C. (1998). *Test of Playfulness (ToP) Manual, Version 3.5*. Fort Collins, CO: Colorado State University.
- Bundy, A. C. (1999). *Test of Environmental Supportiveness (TOES)*. Fort Collins, CO: Colorado State University.
- Bundy, A. C. (2003). *Test of Playfulness (ToP) Manual, Version 4.0*. Sydney: University of Sydney.
- File, N., & Kontos, S. (1993). The relationship of program quality to children's play in integrated early intervention settings.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3**(1), 1-18. doi:10.1177/027112149301300104
- Friendly, M., Doherty, G., & Beach, J. (2006). *Quality by design: What do we know about quality in early learning and child care, and what do we think? A literature review*. Retrieved June 27,

- 2017 from [http://www.childcarequality.ca/wdocs/QbD\\_LiteratureReview.pdf](http://www.childcarequality.ca/wdocs/QbD_LiteratureReview.pdf)
- Harms, T., Clifford, R. M., & Cryer, D. (2014). *Early Childhood Environment Rating Scale*.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Howes, C., & Stewart, P. (1987). Child's play with adults, toys, and peers: An examination of family and child-care influences. *Developmental Psychology*, 23(3), 423-430. doi:10.1037/0012-1649.23.3.423
- Johnson, J. E., Christie, J. F., & Wardle, F. (2006). Play, development, and early education, 놀이, 발달, 유아교육(이진희, 손원경, 안효진, 유연옥 옮김). 서울: 아카데미프레스(원판 2005).
- Kontos, S., & Wilcox-Herzog, A. (2001). How Do Education and Experience Affect Teachers of Young Children? Research in Review. *Young Children*, 56(4), 85-91.
- Lee, V. E. (2000). Using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to study social contexts: The case of school effects. *Educational Psychologist*, 35(2), 125-141. doi:10.1207/S15326985EP3502\_6
- Lieberman, J. N. (1977). *Playfulness: Its relationship to imagination and creativity*. New York: Academic Press Inc.
- LoCasale-Crouch, J., Konold, T., Pianta, R., Howes, C., Burchinal, M., Bryant, D., et al. (2007). Observed classroom quality profiles in state-funded pre-kindergarten programs and associations with teacher, program, and classroom characteristic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2, 3-17. doi:10.1016/j.ecresq.2006.05.001
- Mashburn A. J., Pianta, R. C., Hamre, B. K., Downer, J. T., Barbarin, O. A., Bryant, D., et al. (2008). Measures of classroom quality in prekindergarten and children's development of academic, language, and social skills. *Child Development*, 79(3), 732-749. doi:10.1111/j.1467-8624.2008.01154.x
- Mass, C. J. M. & Hox, J. J. (2005). Sufficient sample sizes for multilevel modeling. *Methodology*, 1(3), 86-92. doi:10.1027/1614-2241.1.3.86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2). Childcare structure → Process → Outcom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child-care quality on young children's development. *Psychological Science*, 13(3), 199-206. doi:10.1111/1467-9280.00438
- Phillips, D., Mekos, D., Scarr, S., McCartney, K., & Abbott-Shim, M. (2000). Within and beyond the classroom door: Assessing quality in child care cente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5(4), 475-496. doi:10.1016/S0885-2006(01)00077-1
- Proyer, R. T. (2012). Examining playfulness in adults: Testing its correlates with personality, positive psychological functioning, goal aspirations, and multi-methodically assessed ingenuity. *Psychological Test and Assessment Modeling*, 54(2), 103-127. doi:10.5167/uzh-63532
- Rigby, P., & Gaik, S. (2007). Stability of playfulness across environmental settings: A pilot study. *Physical and Occupational Therapy in Pediatrics*, 27(1), 27-43. doi:10.1300/J006v27n01\_03
- Rubin, K. H. (1977). Play behaviors of young children. *Young Children*, 32(6), 16-24.

- Rubin, K. H., Fein, G. G., & Vandenberg, B. (1983). Play. In P. H. Musse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4th ed., pp. 693-774). New York: Wiley.
- Wilkes, S., Cordier, R., Bundy, A., Docking, K., & Munron, N. (2011). A play-based intervention for children with ADHD: A pilot study. *Australian Occupational Therapy, 58*(4), 231-240. doi:10.1111/j.1440-1630.2011.00928.x
- Youell, B. (2008). The importance of play and playfulness. *European Journal of Psychotherapy and Counselling, 10*(2), 121-129. doi:10.1080/13642530802076193

논문투고: 18.01.27  
수정원고접수: 18.05.18  
최종게재결정: 18.05.30